

남매 경영 끝낸 콜마그룹... '바이오'로 성장축 바꾼다

윤상현 부회장 중심 체제 강화
한국콜마로 화장품사업 일원화
CRO 기업 우정바이오 인수

콜마그룹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을 강화한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생명과학을 핵심 성장 축으로 세워 그룹 가치사슬을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1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콜마그룹 창업주 일가 내 경영권 갈등의 불씨가 됐던 '남매 경영'이 종료됐다. 지난 15일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사임해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다. 윤여원 전(前) 대표는 사내이사직만 유지한다.

그간 콜마그룹에서 핵심 계열사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사업은 창업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장녀 윤여원 전(前)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전개하는 남매 독립 경영이 이뤄져 왔다.

이번 체제 개편은 지난해 10월 윤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오른쪽).

/콜마그룹

원·윤상현·이승화 3인 각자 대표 체제 출범 후 6개월 만이다. 다만 당시에도 이승화 대표가 경영을, 윤상현 부회장이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을 맡았다. 윤여원 전(前) 대표는 사회공헌 등 대외 활동을 담당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전문경영인 체제가 예고됐다.

콜마그룹은 이러한 콜마비엔에이치 경영 쇄신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해 실적에서 성장세가 정체됐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57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226억원으로 적자를 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매출에서 3096억원, 화장품 매출에서 1296억원 등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각각 2.9%, 13.9% 줄었다.

콜마그룹은 우선, 콜마비엔에이치 비주력 사업을 정리해 그룹 내 중복된 화장품 사업을 한국콜마에서 일원화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콜마비엔에이치의 기존 화장품 관련 계열사 콜마스크, 에치엔지 등을 매각했다. 콜마스크는 한국콜마로 편입됐고 에치엔지의 화장품 제조사업은 한국콜마 종속회사 콜마유엑스가 양수했다.

이와 함께 콜마그룹은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비임상시험수탁(CRO) 전문기업 '우정바이오'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어 문병석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사장)을 우정바이오 신입 대표로 전면 배치했다.

우정바이오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효능 및 안전성 평가, 분석 시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바이오텍 액셀라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오간-온-어-칩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간-온-어-칩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생체 장기를 모사한 칩이다.

이는 콜마비엔에이치 주력 사업을 건강기능식품에서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재조정해왔다. 윤상현 부회장의 구상과도 맞물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콜마는 계열사로 HK이노엔, 넥스트엔바이오 등을 확보해 왔다.

신약개발 전문기업 HK이노엔은 이미 콜마그룹 내 바이오 사업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 등 차세대 국산 신약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 모델까지 구축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 1조632억원, 영업이익 1109억원을 올렸다. 전년 대비 매출은 18.5%, 영업이익은 25.7% 커졌다. 특히 한국콜마 전체 매출에서 해당 매출과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 46% 수준이다.

또 넥스트엔바이오는 첨단바이오시장을 공략한다. 환자 유래 장기 모사체인 오가노이드 기술을 갖췄다. 콜마그룹 측은 향후 바이오 부문에서 또한 연구개발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그룹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환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청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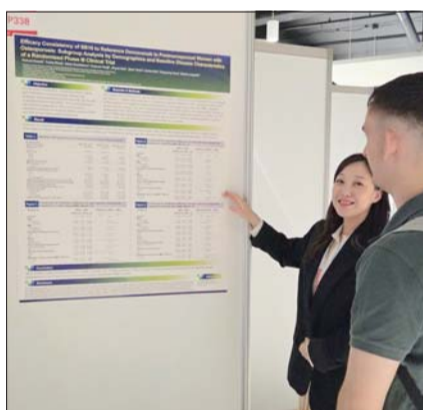
metro

삼바이오피스, '오보덴스' 연구서 효과 입증

골다공증 관련 국제학술대회서 발표
질환 특성 변수에도 일관된 효과 보여

삼성바이오피스가 16~19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골다공증 관련 국제 학술대회(WCO-IOF-ESCEO)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프로젝트명 SB16)'의 임상 3상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바이오피스가 진행했던 SB16 글로벌 임상 3상의 하위집단(subgroup) 대상 탐색 목적의 분석으로,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 456명의 연령 및 체질량지수(BMI) 등 인구학적 특성과 척추 골절 이력 등 질환 특성이 약물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삼성바이오피스가 16~19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골다공증 관련 국제 학술대회(WCO-IOF-ESCEO)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프로젝트명 SB16)'의 임상 3상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피스는 SB16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약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

/이세경 기자 seilee@

에서 하위집단 분석 대상 환자들의 요추(LS), 고관절(TH), 대퇴 경부(FN) 골밀도의 기준선 대비 변화율(CFB)을 분석해 치료 전후 효과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학적 특성과 질환 특성 변수를 감안했을 경우에도 SB16과 오리지널 의약품은 하위군의 치료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삼성바이오피스 임상의학본부장 신동훈 부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 처방 환경의 다양한 환자군 범위에서 오보덴스의 일관된 치료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품질 바이오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알리글로' 응집 최소화로 안정성 확인

GC녹십자,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아

GC녹십자가 오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는 '미국 흡인 퓨전협회 2026 연례학술대회'에서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응집 특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판 중인 면역글로불린 제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체 개발한 '알리글로'를 포함해 총 5종의 제품에서 단백질 크기, 입자 형태 등을 비교하며 상용화된 제품 내 단백질이 얼마나 묻쳐 있는지를 분석했다.

면역글로불린은 면역질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며 단백질이 서로 묻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 '알리글로' /GC녹십자

응집 현상은 약물 안정성이나 환자 투여 시 이상반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품질 요소로 꼽힌다.

분석 결과, GC녹십자의 알리글로는 경쟁 제품들 대비 단백질 응집체와 분절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멜라 쿠션' 노화·피부톤 동시관리

동국제약은 데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마데카 멜라 캡처 토닝 에이징 커버 쿠션'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미 관리, 항노화, 피부 커버 기능을 한 데 담은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대표 제품인 '기미애플'의 핵심 성분 '멜라 캡처 애플'을 활용하며 전체 성분의 64%를 스킨케어 에센스로 설계해 피부 겉과 속에서 피부 노화 원인을 종합 관리해 준다.

또 토닝 테카 성분을 더해 피부 진정과 보습 기능을 갖췄다. 해당 성분은 병풀수에 동국제약 독자 성분 센텔라아시 아티카 정량추출물, 비타민나무수 등을 결합한 복합물이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비만 신약 상용화 협의체 출범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통합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미 C&C 스퀘어에서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를 위한 전사 협의체 'EFPE-PROJECT-敍事(에페-프로젝트-서사)'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발, 임상, 생산, 유통, 마케팅 등 모든 제반사항을 하나의 실행 체계에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다.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관리 등에 효능을 갖췄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 안에 시판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고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

만약으로 출시한 이후 로드맵도 구상하고 있다. 당뇨 적응증 추가, 실시간 데이터 확보,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발매 1년차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체감하는 임상적 가치를 근거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약물 전달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장기 지속형 약물 기전을 다양한 질환에 확대 적용한다.

최인영 R&D센터장은 "약물을 서서히 흡수하는 특성과 완만한 혈중 농도 프로파일은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고 증량 과정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특히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현재까지 출시된 GLP-1 계열 약물 중 가장 우수한 심혈관 및 신장 질환 보호 효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시지바이오, '디클래시 PDRN' 임상 승인

주름 개선 효과 검증

대웅그룹 특수관계사인 바이오 재생 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스킨부스터 '디클래시 PDRN' 임상시험계획(IDE)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눈가 주름 개선 적응증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측 눈가 주름 부위에 디클래시 PDRN을 시술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오는 5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총 366명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해당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한다.

디클래시 PDRN은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차세대 제품이다. 기존 PDRN 제품군에서 지적돼 온 주입 시 통증, 시술 직후 엠보싱 현상, 결절 우려 등 환자 부담 요소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지바이오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고순도 저점도 PDRN 기반으로 설계돼 주입감이 부드럽고 피부 내 고른 시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시술 직후 일상 복귀 부담도 낮췄다.

/이청하 기자